



해외 주요 타이어 업체 동정 (단신)



미·쉐·린



◎ 미군당국과의 타이어 공급 계약

미쉐린사는 미군 당국과 24억\$이상의 3개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가장 수익성이 큰 것은 Ohio 주 Columbus의 국무성 지원센터와 맺은 17억\$ 10년 계약이며, 동 계약에서 Michelin Americas Truck Tires(MATT)사는 미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육상 타이어를 공급하게 된다. 미쉐린은 미국 리서치 회사인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사와 함께 동 계약건에 대한 도매 공급, 저장, 분배 등의 관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기 계약에 대한 발표 2주전에 동사는 국무성지원센터와 항공기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7억\$ 10년 계약을 발표했었으며, 동 계약은 거대 항공우주장비 및 방위장치 제작사인 Lockheed martin사와의 제휴로 수행될 것이다. 또다른 미국 군과의 계약은 BFGoodrich 브랜드 사업부가 미군의 험비(Humvee) 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개발된 BFGoodrich Baja T/A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한 1,070만\$ 계약건이며, 동 계

약에서의 타이어 생산은 Indiana주 Fort Wayne 공장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미국「Tire Business」07. 2. 12일자〉

◎ 트레드패턴 디자인 보호조치 강화

미쉐린사는 동사의 타이어 트레드 패턴의 모방 및 무허가 복제품 근절을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명서를 통해서 동사는 미쉐린의 트레드 패턴을 모방한 트레드, 리트레드 또는 moulds를 판매 또는 제조하는 retreaders, mould 제조사등과 대항하여 its fight를 extend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우선 05년 1월부터 도입된 'Micheline Durable Technologies' 을 embodying 하고 있는 제품들의 copies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necessary to vigorously enforce all its rights including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7. 1·2월호〉

● Bandag사 매입

브리지스톤 북미사(Bridgestone Americas Holding Inc.)는 북미지역에서 최대 리트레드 프랜차이즈 및 최대 원료 공급 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약 10억 5천만\$로 거대 타이어 리트레딩 재료 및 장비 제조사인 Bandag사를 매입할 계획이다. 거래가 완료된 후에 Bandag사는 BAH사의 100%지분 자회사로 운영된다. Bandag사는 06년에 세계 전역에서 9억 2100만\$의 판매를 기록했었다. 동사의 판매는 유럽지역 비중이 미국보다 작아서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Europe, Middle East, Africa)지역은 판매의 약 20% 정도이며, 벨기에에서 밉싱 및 트레드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브리지스톤사의 대변인에 따르면 Bandag사의 유럽 사업이 브리지스톤사의 리트레드 사업과 통합될 것인지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며 다만 생산시설 및 고객 정보 차원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7. 1. 2월호〉

● OTR 공장 설립 계획

브리지스톤사는 광산과 건설부문에서의 증가하는 타이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2년 6개월에 걸쳐 2억 4,000만\$을 투자하여 대규모 건설용 타이어 공장을 일본에 건설할 계획이며, 동사가 일본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30년 만이다. Fukuoka Prefecture의 Shimonoseki 기존 공장에 인접한 215 에이커 면적의 부지에 위치할 동 공장은 09년 하반기

에 생산을 시작하게 되며 2010년까지 전 설비 가동으로 일간 30톤의 혼합고무의 생산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동사는 일본 Saga에 스틸코드 생산 설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2,960만\$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동 건설용 타이어 생산을 보조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는 설립 36년 된 Shimonoseki 공장에 1억 5,500만\$을 투자하여 건설용 타이어생산 능력을 08년 초까지 20% 증강시키는 동사의 진행되어 오던 프로젝트에 초과된 것이며, 이 두 프로젝트로 동사는 2010년까지 대규모 건설용 타이어 생산능력을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초대형 래디얼 타이어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Shimonoseki 공장과 인접하게 건설될 동 신규 공장은 동사의 52번째 공장이 될 것이다.

〈미국 「Rubber & Plastics News」, 07. 1. 22일자〉

● 고비용 설비 감축 조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제조설비를 감축하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굿이어사의 큰 전략의 일환으로 동사는 Morocco의 Casablanca타이어 공장을 폐쇄하고 Quebec의 Valleyfield 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로 동사는 한해 약 5,000만\$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립된지 35년 된 Casablanca공장에는 약 15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일간 3,000개의 승용차용, 트럭용 및 농경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동 공장의 폐쇄로 동사는

2800만\$의 관련비용이 발생될 것이며 반면에 연간 약 1,000만\$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생산 중단이 예정되어 있는 Valleyfield 공장은 올 2/4분기 말까지 원재료 믹싱센터로 전환될 계획이다. 설립된지 43년된 동 공장은 현재 약 1,000명의 시급 및 월급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일간 24,000개의 래디얼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믹싱 센터로 전환되면 약 200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Tire Business」, 07. 1. 15일자,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7. 1. 2월호〉

● USW와의 협상 타결

북미지역 굿이어사의 16개 생산 라인에서 거의 3개월간 진행된 노조 파업이 드디어 끝나고, 멈추어있었던 타이어 공장은 지난 몇 주간 생산력을 끌어올려 전 라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철강노조(USW) 측은 지난 12.22일 교섭위원회가 잠정 합의안에 동의한 후 12.28일 굿이어사와 신규 3년 주요 계약건에 승인하였으며, 캐나다 4개 공장의 노조원들도 최근 별도의 합의안에 승인하였다. 약 15,000명의 USW 노조원들은 고용 보장과 퇴직자 의료보험 보장 그리고 동사의 Texas Tyler 공장에 대한 폐쇄 결정과 같은 주요 쟁점에서의 노사간 협상 실패로 지난 10.5일 동 파업을 시작했었다. 미국 12개 공장과 관련한 마지막 협상에서, 동사는 11개 공장을 보전하고 Tyler 공장의 폐쇄는 07.12.31일까지 유보하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동사는 현재와 향후의 퇴직자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신탁기금 마련을 위해 10억\$을 제공하기로 동의하였다.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7. 1. 2월호〉

요·코·하·마

● 매출 상승, 수익 감소

요코하마사는 최근 사분기 순판매액이 전년동기 대비 10.5% 상승하였고 반면에 순수익은 74.8% 대폭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사에 따르면 최근 사분기 판매는 2,224억엔이었고, 이러한 판매에서의 증가는 신차용 타이어 사업부문에서의 증가를 포함하여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 성장에 따른 것이다. 그룹 전체의 판매액은 11.5% 상승한 1,625억엔을 기록하였고 반면 영업이익은 69.7% 감소한 11억엔이었는데, 이는 천연고무를 비롯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반영된 것이다.

〈영국 「Tyres & Accessories」, 06. 12월호〉

쿠·퍼

● 06. 3/4분기 2,500만\$ 순손실 기록

쿠파사는 06. 3/4분기에 전년대비 28% 상승한 7억 1,600만\$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2,500만\$의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06. 9월 누계 기준으로는 05년 동기대비 22% 상승한 19억\$의 판매를 기록한 반면 5,100만\$의 순손실을 보았다. 동사에 따르면, 3/4분기 순손실은 북미지역 재고조정에 따른 비용, 사임한 Tom Dattilo 회장에게 지급된 퇴직금 500만\$, Georgia의 Athens 공장 폐쇄와 관련한 비용 그리고 유럽 사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등의 요인으로 발생되었으며, 한편 판매 증가는 유럽과 북미시장에서의 판매증

가와 제품 믹스 뿐만 아니라 Cooper Chengshan(Shandong) Passenger Tire사와 Cooper Chengshan(Shandong) Tire사의 판매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동사의 북미지사는 06.3/4분기에 전년대비 8% 상승한 5억 5,200만\$의 판매를 기록하였다. 독일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동사의 3/4분기 실적은 비록 손실을 기록했으나 최초로 동사가 흑자 운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나타냈다.

〈영국 「Tyres & Accessories」06. 12월호〉



도·요

● 06년 상반기 판매 및 수익 증가 발표

도요사는 06년 상반기에 판매와 수익 두 부문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순수익에서의 증가폭은 크게 상승하여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동사의 05년 동기대비 판매는 3.1% 상승한 1,457억엔, 영업이익은 8.7% 상승한 59억 3,100만엔이었고, 경상이익은 22.6% 감소한 44억 400만엔, 그리고 순수익은 292.4% 상승한 85억 9,600만엔을 기록하였다. 일본 국내시장에서 동사의 신차용과 교체용 타이어의 판매는 05년 상반기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일본시장에서의 수요부족과 동사제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모델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와 동사의 주요 브랜드인 Tranpath와 Proxes 부문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마케팅 노력의 결과이다. 한편, 해외판매는 유가 상승에 따른 심한 수요 변동과 과열경쟁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연초 기대보다 엔화의 평가절하 폭이 더 컸던 덕분에 전

년대비 상승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타이어 부문 해외 판매는 전년대비 5.2% 상승한 969억 9,200만엔의 판매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1% 상승한 52억 2,600만엔을 기록하였다.

〈영국 「Tyres & Accessories」06. 12월호〉



노·키·안·타·이·어

● 06. 3/4분기 판매 19.8% 상승

3/4분기 실적발표에서 노키안타이어사는 세전수익으로 3,58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는 05년도 연간 총 1,690유로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분석가들은 동사의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전년도부터의 경쟁압력이 한시적인 것으로, 생산 비용 감소와 고수익성 제품에 대한 수요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의 성과와 신제품 타이어 출시를 통해 동사가 다시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돌아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동사는 시장 상황을 요약하면서, 북유럽 국가에서의 승용차용의 하계용과 동계용 타이어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대조적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동부 유럽과 러시아 시장은 이러한 감소 추세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독일 시장으로의 판매는 신규 겨울용 타이어 관련 법규 마련에 따라 향상되었으며, 동시에 임업용과 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들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영국 「Tyres & Accessories」06. 12월호〉